

# 히브리 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 그 이론과 실제-시편 49편을 중심으로

김정우\*

### 1. 들어가는 말

“오 주님, 언제까지 주의 시가 그것을 산문으로 다루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George Adam Smith, Crim 1972:102에서 인용됨). 이 스미스의 탄식은 히브리 시가 수많은 성서 번역자들에 의해 시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스미스의 탄식은 단지 영어 성서 번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몇 개 되지 않는 우리말 성서 번역본을 보더라도, 히브리 시가 상당히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교회사에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장 큰 사랑을 받아온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이후 『개역』, 1961)을 보면, 그 편집에 있어서 “시”(poetry)인지, “산문”(prose)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일차적으로 기대하는 “여백”이 편집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근에 개정되어 나온 『개역개정판』(이후 『개역개정』, 1998)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역개정』 정도이면, 히브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꼽히는 “평행법” 정도는 최소한 반영이 되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만, 히브리 시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가서에는 이런 고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sup>1)</sup> 『표준새번역』(이후 『표준역』)은 히브리 시의 기본 성격을 이루는 평행법을 반영하는 번역을 하였지만, 편집에 있어서는 무늬만 나타나며, 때로는 행간을 띄어 구조 분석도 하고 있지만 엄밀해 보이지 않고, 실제적인 번역에 있어서는 “의미 일치”보다 “의미 전달”을 쪽이 강조되어, “압축”보다는 “풀어쓰기”(paraphrase)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한

\* 1989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Ph.D.).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

1) 흥미롭게도, 오경과 역사서에서 시로 나타나는 본문에서는 안으로 들여쓰기를 하고 있다(창 49; 출 15; 신 32, 33; 사 5; 삼상 2 등). 그러나 이것도 『개역』의 전통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절의 길이가 『개역』이나 『공동번역』(이후 『공동역』)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sup>2)</sup> 『공동역』은 히브리 시의 기본적인 형식인 “이행(二行) 구조”(binary system)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으며,<sup>3)</sup> 시어의 압축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역』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최근 번역인 임승필의 『구약성서 새 번역 1. 시편』은 기본적으로 이행 구조를 따르고 있지만, “원문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는 번역 원칙을 따르다 보니, 거친 직역들이 많이 나타나 시흥을 느끼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우리말 성서 번역들에 대한 위의 평가는, “히브리 시를 시답게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반증해 주고 있다. 히브리 시가 영감 받은 시인들의 작품이라면, 우리의 번역에서도 “영감이 넘치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 2. 히브리 시의 기본적인 특징과 번역 문제

“히브리 시”를 “시답게” 번역하기 위하여, “히브리 시”가 어떤 기본적인 성격과 중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 먼저 이해할 필요를 느낀다. 왜냐하면, “시”에 대한 개념은 문화와 민족과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의 고정된 시 개념을 고대의 성서 시 속에 투사하여, 왜곡된 기대와 평가를 하기 쉽기 때문이다. 성서 속에는 “시들”은 많이 나타나지만, “시 이론”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설적인 “이론”을 “본문” 속에 대입하여 보고, “본문”을 통하여 “이론”을 재평가해 간다. 이러한 “본문”과 “이론” 사이에 상호적인 만남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이론”과 “실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4)</sup>

### 2.1 히브리 시와 운율

이희승은 『국어대사전』에서 “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문학의 한 부문. 자연, 인생 등의 모든 사물에 대하여 일어나는 정서, 감흥, 상상, 사상 등을 **일종의 운율적 형식으로 표현 서술한 것**(나의 강조). 원래 시의 어원은 과학에 상대하여 창조적 상상 문학을 일컬었음. 본질적 특징은 언어 예술로서의 미적

2) ‘대한성서공회 번역실’에서 검토한 시편 각 역본의 낱말 수는 다음과 같다. 『개역』(26,646), 『개역개정』(27,581), 『표준역』(31,437), 『표준개정』(31,762), 『공동』(27,703), 『공동개정』(26,893). (이 숫자는 띄어쓰기 단위로 확인한 것이므로, 띄어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3) 바로 이 현상 때문에, 『공동역』은 『개역』과 『표준역』보다 두 배나 두꺼워져, 가톨릭 성도들의 불평을 사고 있다고 한다.

4) 그렇지만, 이 글은 히브리시 이론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며, 최근에 다듬어진 시 이론들을 개론적으로 소개하며, 우리의 번역에 반영하는 데 초점이 있다.

가치를 가지며, 시어는 내용, 의미가 풍부하게 또는 깊고 넓게 해석할 수 있고, 리듬(rhythm)을 갖추고 감동을 수반하는 개성적 내면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임. 압운, 자수 등의 격식을 갖춘 정형시와 산문적인 산문시가 있으며, 또 서사시, 서정시, 극시 등으로 나뉨”(2250쪽).

이것보다 조금 짧게 시를 정의한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1992)에서는, “자연과 인생에 대한 감동 따위를 **운율적인 언어 형식으로 쓴 글**(나의 강조), 정형시와 산문시, 또는 서사시, 서정시와 극시 따위로 나눈다”고 한다(2540쪽).

위의 두 정의에서 “시”가 “운율적 형식”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만 하다. 우리는 “시”와 “운율”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운율”이 없는 것은 “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New Encyclopaedia Britannica*에서는, “시라는 용어는 절(verse [아마 行], 영상, 비유 혹은 이와 유사한 장치들을 사용하여 상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고양된 언어를 담고 있는 가상 문학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하며 “운율”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15판, 9:542. “Poetry”).

물론 “시”와 “산문” 사이에 구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위의 세 정의에서 우리는 “시”가 “장식적인 언어”와 “고양된 언어”를 사용하며, 인간의 “상상을 자극하고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언어 예술”로서의 “창조적인 작품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시는 산문에 비하여 짧고 간결하며, 은유와 영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sup>

우리의 문제는 히브리 시에 규칙적인 “운율”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사실 히브리 시 속에서 정형적인 운율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히브리 시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하다”고 말하며, 히브리 시의 예술성에 대하여 혹평하였다. 또한 19세기와 20세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운율에 근거하여 과감한 본문비평”을 시도하게 되었다(예로서 시편 2:2에서 “야웨와 그의 메시아를 거슬러”라는 구절을 BHK와 BHS는 운율에 맞지 않기에 “서기관들의 첨가”로 본다).

물론 히브리 시에 운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많은 현대

5) ‘시’와 개념적인 대칭을 이루는 ‘산문’(prose)에 대해 이회승은 “글자의 수나 운율 같은 것의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는 보통의 문장. 수필, 기행문, 소설, 희곡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1861). 또한 ‘이야기’에 대해서는(5) “어떤 사실이나 또는 있지도 아니한 일을 사실처럼 꾸미어서 재미있게 늘어놓는 말, 설화”로 정의한다(3039). 그는 ‘설화’를 정의하지 않으며,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설화문학’에 대해서는 “설화를 소재로 하여 문학적인 내용과 형식을 갖춘 것의 총칭. 개성미가 없고, 예술성이 낮으나, 서사적, 전기적, 우화적, 전승적인 요소를 갖고, 한 민족의 생활, 감정, 풍습, 신앙 등을 단적으로 나타내어 후세의 문학에 큰 영향을 줌. 예로서 『아라비안 나이트』, 『일리아드』, 『오디시』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2029).

의 주석들은 액센트를 중심으로 한 절 속에서 운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숫자로 표기하고 있다(예, WBC, Psalms, I, II, III). 그러나, 이런 운율 표시는 시 이해와 해석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히브리 시 운율 학자들 사이에서도, 운율 측정 방법론으로 (1) 마소라 사본에 찍힌 강세를 음절로 표기하는 악센트 음절 표기법 (Budde), (2) 음절계산법 (Freedman, Stuart), (3) 모음계산법(장모음을 단모음의 두 배로 계산한다. Christensen) 등이 제시되고 있다 (IDBS. 'Poetry.'). 요더(Yoder)가 이 점에 대해 잘 말했다. “누구나 그 존재와 기본적인 성격을 인정하는 평행법과는 대조적으로, 운율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운율은) 그 존재까지 부인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직 제한된 의견의 일치만 있을 뿐이다.”

나는 히브리 시의 운율체계를 “절대적”으로 주장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히브리어 발음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수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실제적으로 우리는 성서 시의 “운율”에 대한 어떤 전통도 갖고 있지 않다. 어떤 시들은 높은 운율성을 띠고 있으며,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번역 속에 운율을 반영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율성을 띤 번역 작품이라면 환영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문리역』(文理譯)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이 작품의 철저한 정형시적 전통 속에 살고 있던 독자들에게 시경에 필적하는 영감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시편 1편을 보라).<sup>6)</sup> 어느 정도의 운율이 반영된 번역시는 읽기가 쉽고, 음악성을 느낌으로써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며 번역자들은 이 점을 반영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2.2. 히브리 시와 평행법

- 
- 6) 1 聖者之謀弗行,罪人之途弗立  
侮慢者之位弗坐,其人斯有福兮  
2 彼悅耶和華之律法  
思念基律法於日於夜兮  
3 斯人譬如植於溪芳之樹  
及期而實其葉不零  
所行者無不利達  
4 惡人不然乃如  
糝糠爲風所颺  
5 故惡者被鞫不克對  
罪人不得立於義者之會  
6 蓋耶和華知義者之途  
惟惡人之途必滅兮

히브리 시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으로서 “평행법”이 꼽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상식이 되었다. 그렇지만 평행법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으로 큰 변천 과정을 거쳐 왔다. 옛날 랍비들은 “평행법을 잊었기 때문에, 상반절과 하반절의 의미는 다르다”고 보았다. 그러나 로우스(R. Lowth)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히브리 시문학 강연을 통하여(1753), 두 소절 사이에 의미의 밀접한 연관성을 발견하고, (1) 유사적 평행법, (2) 반의적 평행법, (3) 종합적 평행법이라는 범주를 제시하였다. 로우스 이후에, 상징적 평행법, 반복적 평행법, 전환축 평행법, 교차대구법, 점층법 등의 범주들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쿠겔(Kugel)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Alter, Berlin, O'Connor 등)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그들은 평행법을 (1) 의미론적 평행법과 (2) 문법적-언어학적 평행법으로 구분하며, 상반절과 하반절의 관계에 대해 범주에 따른 기계적인 해석이 아니라, 면밀한 분석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한 절 속에서 “평행 단어가 전무한 절로부터 모든 단어가 평행(대칭)을 이루는 절”까지 담고 있는 히브리 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평행법과 번역 문제는 Reyburn 1988:81-112를 보라). 물론 모든 것을 직역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별로 없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한 절의 의미를 시로 창출하여 내는 번역을 한다면, 상반절과 하반절의 번역에 있어서 상호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말 구문구조에 따라 도치와 첨가와 생략 및 변경 등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수반될 것이다).

### 2.3. 히브리 시와 영상

히브리 시에서 우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시들은 주로 강력한 영상이 넘치는 시들이다. 우리는(1) 자연현상(요새, 반석, 피난처, 강, 바다, 폭풍, 우레 등),(2) 동물 영상(사슴, 양 등),(3) 군사영상(용사, 칼, 창, 활 등),(4) 사회적 영상(목자, 아버지 등),(5) 신화적 영상(리위야단, 용 등)과 같은 다양한 영상들을 성서 시에서 만나게 된다. 고대 셈족 사람들이 가졌던 영상을 우리 시대의 영상으로 어떻게 반영하며,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비유적 언어’ 번역 문제는 Ogden 1988:265-73을 보라. “신화적 짐승” 번역에 대해서는 김정우 『성경원문 연구』, 1998:7-23을 보라).

특히 옛날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영상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사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성서의 영상을 어떻게 번역하여야 하는가? 예로서, “뿔”은 시에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데, 이 멋있는 “뿔”을 번역에서 버려야 하는가?(시 18:2; 75:4f; 89:17, 24; 92:10; 98:6; 112:9; 132:17; 148:14 참조).

## 2.4. 히브리 시의 부차적인 특징들

히브리 시에는 시적인 의미 전달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이 등장한다.(1) 알파벳 시(시 9-10; 25; 34; 37; 111; 112; 119; 145 등),(2) 수미일치법(inclusio),(3) 합성어(‘하늘과 땅’, ‘머리와 꼬리’, ‘들어가고 나가며’ 등), (4) 환유(metonymy), (5) 한 쌍의 단어 (word pair, ‘은과 금’, ‘머리와 정수리’, ‘손’과 ‘오른 손’ 등), (6) 반복법, (7) 후렴, (8) 생략법, (9) 중언법(hendiadys,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강포와 탈취’ 등), (10) 역설(irony), (11) 과장법(hyperbole), (12) 두운과 각운, (13) 숫자 평행법 (삼상18:7 등). 이와 같은 다양한 특징들을 우리는 우리의 번역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 3. 히브리 시의 번역론의 몇 가지 문제

### 3.1. 선행 연구들

그 동안 성서 번역에 관한 문제는 다양한 학술지(*Bible Translator*, 『성경원문연구』 등)와 단행본들(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등)에 의해 심도 있게 다루어져 왔지만, 히브리 시와 번역 문제는 매우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 번역이론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책들에도 “시 번역”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Nida 1975, Nida & Taber 1969).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두 개의 대표적인 글을 먼저 검토하고, 우리의 문제들로 정리해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 3.1.1. 크림의 관점

먼저 크림(Crim, 1972)은 “성서 시의 번역”이란 글에서 아래의 세 가지 문제점을 주로 다루고 있다.

(1) 본문 속에서 시문과 산문의 평가 문제. 크림은 BHK, RSV, JB, NEB를 중심으로 6개의 본문들(사 4:3-6; 44:9-11; 65:1-10; 렘 9:22-24; 호 3:1-5; 암 7:1-9)이 시문과 산문 중 어느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제시하면서, 중심 번역본들이 시문과 산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 시의 통일성과 단위 문제. 시들은 하나의 통일체이므로 명백한 시작과 끝을 지닌 단위를 갖고 있는데, 크림은, 그 단위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본

문들을 열거하고 있다(예, 시편 9-10; 42-43; 아가서,<sup>7)</sup> 욱기 등).

(3) 수용 언어에서 시적 형식의 역할 문제. 문화마다 시의 용도와 인식이 크게 다르며, 동일한 언어권 속에서도 시의 문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용 언어권 속에 있는) 번역자들은 현 시점에서 어떤 주제들이 시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적절한지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105쪽). 예로서, 미국에서는 “사랑의 노래”, “비극”, “종교적인 노래나 찬양” 등은 시의 형태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크림은 주장한다.

(4) 수용 언어에서 형식 선택의 문제. 번역자가 “시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후에는, “수용 언어에서 가장 적절한 형식이 무엇인가”라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서 크림은 시를 표현하는 편집적 기술 문제를 다루고 있다.

### 3.1.2. 스텝의 관점

스텝(Sterk)은 “번역에서의 성서 시”라는 논문에서 “시 번역”에 대해 크림(Crim)보다 더 깊은 “해석학적, 이론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1) 시적인 의미 문제. 스텝은 “시 언어”에 대해 “시는 긴 숙어”와 같은 것이라는 사포르타(Saporta)의 입장을 받아들여, “시 언어”(poetic language)와 “비시적인 언어”(nonpoetic language)와의 차원이 다름을 지적하면서, 전자는 후자와 “대립되는 특별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본다. 그는 “시적 의미(poetic meaning)는 시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이며, 그것이 없을 때 산문 본문(prose text)이나 사전적 의미만을 열거한 ‘평이한 운문화 작업’이 되는 것”으로 본다(40쪽).

(2) 시의 의미론 문제. 스텝은 시의 “인식적 의미”(cognitive meaning)와 “시적 의미”(poetic meaning)를 구분한다. 전자는 어휘들의 사전적 의미를 문법적으로 찾아낸 것이며, 후자는 시의 구조 속에 담긴 것으로서 시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 그가 볼 때, “산문은 문장을 풀어 쓰면서”(paraphrase) 번역할 수 있지만, “시는 풀어 쓰고 시로 남아 있을 수 없다”고 본다(41쪽). 즉, “원문의 시적 의미를 이해한 시인-번역자(translator-poet)는 수용 언어에서 그것을 재창조 할 수 있다. 원천 언어에서 시를 구성하는 단어들이 독특하게 조합되어, 다른 복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동일한 조합이 수용 언어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무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볼 때 오직 독특한 한 방식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상동). 달리 말하자면,

7) JB, TEV는 아가서 전체를 시작과 끝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몇 개의 ‘노래들’로 나누었다.

원문에서 시가 독특한 하나의 방식으로 표현되듯이, 번역에서도 시적 의미를 완전히 파악한 하나의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일 것이다).

### 3.2. 번역 이론과 시 이론의 융합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

#### 3.2.1. 번역 원칙의 문제: “형식 일치”(formal correspondence)와 “내용 동등”(dynamic equivalence)

번역에 있어서 “낱말 하나하나를 어법에만 치중하여 충실하게 번역하는 직역” 곧, 문자적 번역(literal translation)과 “원문의 단어, 구절에 지나치게 구애되지 않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되 전체의 뜻을 살리어 자유롭게 번역하는 의역” 사이에는 항구적인 갈등이 있다. 학문적으로 우리는 전자를 “형식 일치”로, 후자를 “내용 동등”이란 용어로 표현한다. (히브리) 시는 일반적으로 고도의 압축을 통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원문의 모든 요소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번역해 내려고 하는 “문자적 번역”(literal translation)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제기된다. 또한 히브리 시에는 은유적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직역”과 “의역” 사이에 어떤 번역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번역자는 미리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위에서 스텝의 “시적 의미”론을 받아들인다면, 내용 동등을 추구하는 번역이 더욱 요청될 것으로 생각된다.

#### 3.2.2. 본문비평과 번역 문제

우리는 현재 히브리어 성서 원본을 갖고 있지 않으며, 역사 속에서 전수된 사본들과 역본들과 이것들을 종합한 “비평본”(BHK, BHS, BHQ 등)을 갖고 있으므로, 원문에 가까울 것으로 추측되는 독법을 따라 가는 본문비평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시편의 본문비평에 있어서는 마소라 사본의 독법을 중심으로, 70인역, 사해사본, 아람어 탈군, 시리아어 페쉬타, 라틴어 벨게이트와 제롬 역 등의 다양한 사본들과 역본들을 검토하며, 본문 전수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보며, 각 역본들의 성격과 가치를 평가하면서, 원문에 가까운 독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김정우, “시편의 본문비평” 참조).

#### 3.2.3. 시형식의 상호 일치 가능성의 문제(the form-critical correspondence)

아시아에서는 오랫동안 전수된 시적 전통이 있으며, 전통적인 형식과 성서의 시 형식이 유사하거나 일치될 때, 독자와 청중들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크림은 “원천언어에서 원래의 시적 형식이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적 형식을 수용언어에서 찾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하나의 예로 시편이 찬송가 형식으로 여러 곳에서(화란, 영국, 불란스, 독일 등) 사용되었음을 언급한다(107쪽).<sup>8)</sup> 나아가 그는 “몇몇 언어들에 가진 융통성과 그들의 시적인 자원들을 볼 때, 히브리 시는 그 언어의 지배적인 시적형식(poetic forms)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톤은 “타이 시로 번역하는 문제”라는 글에서, “태국에는 서사시, 서정시, 교훈시 등의 다양한 시적인 형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100년이 넘었지만, 이 대중적인 문학적 양식을 성경 번역에 한 번도 심각하게 사용해 보지 못한 비극”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있다(Hatton 1974:138). 돈은 “필리핀 시와 번역” 문제에서 시편을 따갈로그(Tagalog)어로 번역하는 시도를 제시하면서, “어떤 장르의 성서본문을 시적형태로 번역할 것이며, 어떤 장르는 시적 형태로 번역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원칙 문제를 다루고 있다(Dorn 1994:314). 우리 나라에도 온갖 다양한 시의 형식들이 있으며, 시조는 오랫동안 우리의 가슴을 울려온 형식이므로, 성서 시의 형식을 전통시의 형식과 일치시켜 번역, 혹은 사용해 보는 가능성도 고려해 볼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 3.2.4. 수사학적 관점과 구조 분석의 문제

모든 시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며, 중간에 발전과 전환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를 읽을 때, 그 구조를 파악하며, 구조적 변화가 주는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 애쓰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시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개역』에도 동그라미(기호)를 통한 구조분석이 반영되어 있다. 물론 『개역』 편집자가 학문적인 구조분석을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전통을 반영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현대에 와서 시편의 시들은 크게 연(stanza)과 소절(strophe)로 구분되며(Watson), 현대의 번역들은 시의 구조를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하고 있다. 물론 구조분석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구조분석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좋은 구조분석은 본문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번역에서 구조를 제시하는 것은 유익하리라고 생각된다.

#### 3.2.5. 정경적 형식과 번역 문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은 마소라 사본을 따라 배열된 것으로서, 70인

8) 크림은 18세기에 포우프(A. Pope)가 그 당시 유행하던 ‘이행대구 운율’ 형식으로 일리아드를 모두 번역하였음을 예로 들어 말한다.

역과는 배열과 절 구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우리는 현재 절 구분은 70인역을 따르며(표제를 절에 포함시킴), 시편 구분은 마소라 사본을 따르고 있다(예로서 9, 10편, 114-115편은 70인역에서 각각 한 편의 시로 다루어진다). 또한 시편 속에는 여러 편들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복들을 번역에서 일치시킬 것이지, 달리 번역할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시 14//53; 40:13-17//70:1-5; 108//57:7-11+ 60:5-12). 왜냐하면, 중복 현상 속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 3.3. 소결론

(1) 히브리 시를 “시답게” 번역하는 것은 우리말 성서 번역사에서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여겨진다. <개역>과 <개역개정>은 번역원칙에 있어서 “문자적 번역”을 따르고 있으며, <표준역>은 “의미전달”에 애를 쓰지만 많은 경우 “풀어쓰기”가 되어, 문장의 길이가 다른 번역에 비해 훨씬 길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더욱 “압축되고, 고양된 시어”를 사용한 “쉽고도 좋은 우리말” 번역이 장차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2) 히브리 시는 “의미 일치/동등”(dynamic equivalence)의 원칙에 따라 번역하는 것이 “형식 일치”(formal correspondence)의 원칙에 따른 번역보다 훨씬 바람직해 보이지만, “성경번역”은 항상 “번역성경을 사용하는 신앙 공동체”의 성경관과 전통과 정서와 신학적 입장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개역>과 <표준역>의 전통을 각각 발전시킨 “더욱 완성도가 높은 새 번역들이 요청된다”고 말할 수 있다.

(3) 새 번역에는 편집에 있어서 히브리 시의 기본 형식인 “평행법”을 편집적으로 잘 드러내도록 하며, “학문적인 연구에 근거한 구조분석”을 번역성경에 반영함으로써, 독자들이 시의 흐름과 중심 메시지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다음 시대에는 우리 나라의 시 전통에 대한 더욱 깊은 연구를 통한 “시 형식의 일치”(the form-critical correspondence)까지도 시도해 봄으로써, 우리의 “정서”에 더욱 가깝게 다가오는 시 번역이 요청된다. 물론 이것은 성경의 모든 시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세속 시”와 “종교적이며 경전 속에 담긴 시”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점과 해당되는 두 시 사이의 “형식의 일치”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4. 히브리 시 번역의 실제(시편 49편을 중심으로)

### 4.1. 형식, 구조

#### 4.1.1. 형식

헤르만 궁켈은 구약성경 속에 있는 지혜시들을 다루면서, 세 개의 발전단계로 나누고 있다. 즉, (1) 인생 일반과 보편적 성격을 띤 초기시(시 112 등), (2)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목상을 담은 (중기)시 (이집트의 메리카레의 가르침, 아메네모페의 지혜), (3) 전통적 지혜에 대한 회의를 제기한 후기시(욥, 전도서 등)로 분석한다(1998:295). 그리고 그는 “시편 49편은 순수한 세속적 시로서, 소유의 무상함을 다루기 때문에 옛 지혜시에 속해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궁켈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지만, 이 시를 “지혜시”로 분류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시편 속에는 “지혜”와 유사한 단어들(3, 4절), 가르침의 대상을 “온 인류”로 설정하고(1-4절), “제자들”을 “너희”라고 부르며(16절), 어리석은 자를 “짐승”에 비유하며(12절; 시73:22; 92:7; 94:8; 잠 30:2), “인간이 스스로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상은 모두 지혜시의 요소에 속한다. 궁켈은 “문체를 살펴볼 때, 이렇게 완전한 통일성을 이루며, 탁월하게 고양된 시는 더욱 발전된 단계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296쪽).

시편의 형식과 배경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궁켈과는 달리, 게르스텐버거는 이 시편이 공동체적 성격과 의식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므로, 단순한 “지혜시”로 분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식적 노래를 단지 ‘지혜시’라고 부르는 것은, 공동체적 배경이 고려되었을 때에만 가능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 시편 속에는 반추적이며, 논쟁적이고, 경고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리는 ‘회당적인 목상과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결론짓는다(206쪽). 이리하여 게르스텐버거는 이 시편을 훨씬 후대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가 볼 때, 이 시편은 “지혜시”이지만, 일반적인 지혜시와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이 시편이 “부와 가난”, “악과 의”, “죽음과 구속” 등 삶의 부조리 문제를 다루며 교훈하고 있지만, 이런 주제를 다루는 지혜 시편인 37편, 73편과 다르며, 또한 “보응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91, 112, 128편과도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시편이 “수수께끼” 형식을 띠고 있다는 데 있

다. 수수께끼는 만드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분명하지만, 풀어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호하다. 때때로 수수께끼는 “삼손의 수수께끼”처럼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삿 14:14-20).<sup>9)</sup>

퍼두(Perdue 1974:538)는 이 시편의 수수께끼에 대해 “1-4절에서 시인은 청중을 모으며, 수수께끼('eptah)를 잠근 후에 나머지 소절에서 풀도록 한다”고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20절에 수수께끼가 담겨 있고, 원래의 답은 12절에 있다”고 보았다. 흥미롭게도 이 두 절은 이 시편에서 후렴으로 여겨지며, 구문구조와 어휘배열에 있어서 거의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개역』을 보라).

- 12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따라서 이 시편은 “사람 일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존귀한 사람으로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곧 “도살을 당할 짐승”과 같음을 말해주는 수수께끼로 여겨진다.

그러나 4절에서 시인은 “내가 나의 수수께끼를 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시편의 “수수께끼”는 일차적으로 시인에게 주어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었고, 그것을 시의 형식에 담아 다시 그의 독자들에게 “수수께끼”로 주어지고 있다. 그의 수수께끼는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짐승인 자는 누구인가?”에 있다.

#### 4.1.2. 구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을 크게 세 소절로 나누며, 주제어 설정과 후렴 처리에 있어서 약간씩 달리하고 있다. 크레이기는 (1) 지혜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서론(1-4절), (2) 첫째 가르침: 부자를 두려워하는 문제에 대한 지혜(5-12절),

9) 시인이 던지는 수수께끼는 삼손이 그의 결혼식에서 신부의 친구들에게 던진 수수께끼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삼손은 신랑신부의 친구들과 더 친근한 만남을 갖기 위하여 수수께끼를 내었다. 여기에서는 인생의 더 보편적인 문제인 “삶과 죽음”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다. 삼손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던졌다(삿14:14). 그 답은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였다(18절). 이 질문에서 “사자”와 “꿀”이 서로 이어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우리에게는 이 두 단어가 연결되지 않지만, 히브리어에서 “사자”(ari)는 “꿀”이라는 두 번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과 답은 성립된다(아랍어 'aryu, 우가릿어 ar; Porter 1962:537; Perdue 1974:537).

(3) 둘째 가르침: 부를 믿는 어리석음 (13-20절)으로 구성되며, 12, 20절이 각각 주어진 문제에 대한 “지혜의 본질”을 담고 있다고 본다. 앤더슨도 동일하게 세 소절로 나누면서도 중심 가르침의 주제에 대해서는 (1) 부의 한계(5-12절)와 두 개의 운명(13-20절)으로 제시한다.

크라우스는 내용을 따라 다섯 개의 소절로 나눈다. (1) 서론(1-4절), (2) 악한 날의 어려움에 대한 생각(5-6절), (3) 원수에 대한 애통(7-14절), (4) 자신의 운명에 대한 묵상(15절), (5) 결론(16-20절). 게르스텐버거는 형식적 요소를 따라 (1) 첫 노래(1-4절), (2) 고발성 묵상(5-11절), (3) 후렴(12절), (4) 애통과 위로 (13-19절), (5) 후렴(20절)으로 제시함으로써 후렴을 구조 분석에 독자적 항목으로 분리해 내었다.

우리는 수수께끼를 중심으로 크게 세 연으로 나눈 후, 두 번째 연(5-12절)과 세 번째 연(13-20절)을 각각 세 소절로 분석해 보았다.

1. “나의 수수께끼를 풀어 보아라”(1-4절)
  - (1) 세상 모든 사람들과 들어 보아라(1-2절)
  - (2) “나의 오묘한 수수께끼를 들어 보아라”(3-4절)
2.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5-12절)
  - (1) 자신의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가?(5-8절)
  - (2) 부자의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는가?(9-11절)
  - (3) 첫째 후렴: 수수께끼의 실마리 제시(12절)
3. 누가 미련한 짐승인가?(13-20절)
  - (1) 가난한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13-15절)
  - (2) 부자의 영원한 운명은 어떤 것인가?(16-19절)
  - (3) 둘째 후렴: 수수께끼의 답(20절)

제 1연은 “들으라”(1절)와 “귀를 기울이다”(4절)로 수미일치를 이루며, 연 안에서는 “만민들”, “세상의 거민들”(1절)이 “귀천빈부”(2절)와 이어지며, “지혜”와 “명철”(3절)은 “비유”와 “오묘한 말”(4절)로 이어지고 있다.

제 2연은 주로 “부자”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다루고 있다. “부자”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며”(6절),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하며”(7절), “생명의 구속은 너무나 비싸며”(8절), “그의 재물은 타인에게 넘어가며”(10절), “그의 집과 땅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한다(11절).

제 2연을 우리는 후렴을 제외하고(12절), 5-8절을 잇고, 9-11절을 이어 두 소절로 나누었다. 왜냐하면 첫 소절에서는 “부자의 돈이 쓸모 없음”을 강조하며 (5-8절), 둘째 소절에서는 “부자의 죽음”과 “무덤”이 부각되기 때문이다(9-11절).

제 3연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하여(13절), “깨닫지 못한다”(20절)로 마쳐 수미일치를 이룬다. 첫 연의 첫 소절은 다시 한번 “부자의 영원한 운명”이 “음부”(3회)임을 분명히 한다. 둘째 소절은 “부자의 부와 영광”을 다루지만, 그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16절). 이리하여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라는 첫 질문(5절)이 해소된다.

이 시편에서는 후렴이 두 번 나타나며, 첫째 후렴을 통하여 수수께끼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둘째 후렴으로 “답”을 제시한다.

## 4.2. 주석과 본문비평

### 4.2.1. “나의 수수께끼를 풀어 보아라” (1-4절)

#### (1) 세상 모든 사람들아 들어 보아라(1-2절)

1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 보아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너희 귀를 기울여 보아라.

시인은 “모든 백성들”과 “세상의 모든 거민들”(개역)을 부르고 있다.<sup>10)</sup> 여기의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포함된다. “모든 백성들”과 평행을 이루는 “세상의 거민”에서 “세상”(cheled)이란 용어에 대해 BHS는 “하나의 사본에서 ‘세계, 세상’으로 읽혀지고 있다”고 한다(Ps 49, 2<sup>a</sup> MS 57π). “세계의 거민”이란 표현은 이사야 38:11에 정확하게 나타나므로, 우리도 수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소라의 독법인 “세상”(cheled)도 기본적으로 “살다”(chadal)란 동사에서 나온 것으로서(49:8), 명사형에서는 (1) 시간으로서의 “일생”(lifespán, 시 39:5; 89:37)과 (2) 공간으로서의 “세상”(시 17:14; 11:4, [’olam과 동의어임])이란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며, 여기에서는 두 번째 뜻이 문맥에 더 어울리므로, 수정하지 않고 읽을 수 있다.

시인이 경험한 문제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문제이며, 인종과 종교와 나라를 초월하여 있는 문제이므로, 모든 세상 사람을 초청하고 있다. 물론 그는 문자 그대로 모든 세계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지혜는 만민에게 적용된다고 믿고 있다.

“들어라” 하는 부름은 꼭 지혜문학에만 한정되어 나오는 형식은 아니며, 다

10) 여기에서 마이어(De Meyer, F 1979:152-168)는 “이 시편은 다른 지혜 문학에서처럼, 아들이나 아들들을 부르지 않고 있음”을 잘 관찰하고 있다. 리핀스키(Lipinski 1973:122-23)는 우가릿의 수베아빌룸(Sjube’awilum)이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면서 만민을 불러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시편과의 연관성을 잘 만들고 있다.

양한 맥락에서 나타난다(창 4:23의 노래; 잠 4:1의 교훈; 신 33:7의 기도). “듣다”와 “귀기울이다”는 상투적인 평행어이다(시 10:17; 17:1, 6; 18:6, 44; 39:12; 44:1; 45:10; 54:2; 84:8; 92:11; 94:9; 115:6; 130:2; 143:1 등). 시인은 청중들에게 주의를 집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시가 수수께끼 형식을 띠고 있으므로, 우리는 “내 말을 들어 보아라, 너희 귀를 기울여 보아라”로 번역하였다.

2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도,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도, 모두 귀를 기울여 보아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른 후(1절), 시인은 좀더 구체적으로, “귀천빈부”를 부르며, 자신의 청중으로 초대하고 있다. 즉, 1절의 보편적 인류로부터 2절에서는 “사회계층”과 연관된 사람들로 넘어오고 있다. 시인이 직면한 문제는 바로 사회의 모든 계층과 연관된 문제이며, 특히 빈부의 격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소라 사본은 “천하고 귀한 자와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어순으로 나타나지만(『공동역』), 『개역』에서는 한자어 술어를 따라 “귀천빈부”의 순으로 재배열되고 있다. 상반절에는 “낮은 사람”(bene 'adam)과 “높은 사람”(bene 'ish)이 대조되고 있다. 전자는 “보통 사람들”(Lat. Plebei)을, 후자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왕족과 귀족”(Lat. Patricii)을 뜻한다(시 4:2; 62:9; 애 3:33).<sup>11)</sup> 그러나 이런 의미론적 구별이 고정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낮은 사람”(bene 'adam)은 다른 곳에서 사람에 대한 총칭이며(시 11:4; 14:2; 31:20; 66:5; 89:48; 90:3),<sup>12)</sup> 때로는 “강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시 57:5; 58:2)으로도 나타난다.

시인이 하반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흥미롭다(이 두 단어의 평행용례에 대해서는 출 30:15; 레 25:47; 민 13:20; 룻 3:10; 삼상 2:7; 삼하 12:1, 4; 시 49:2; 잠 21:17; 22:2, 7; 눅 16:22; 고후 6:10; 약 2:5; 계 3:17; 13:16를 보라). 왜냐하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인생에서 고난을 더 심하게 받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시인은 부자도 부르고 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재물의 한계를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윤리적인 대립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2) “나의 오묘한 수수께끼를 들어 보아라”(3-4절)

3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11) 버텐비저는 사무엘하 20:1, “베냐민 사람 시므이”에서 “사람”을 “정치집단”(body politic)으로 본다(Buttenwieser 647).

12) 시편 4:3에서 이 용어(bene 'ish)는 “인생들”(개역), “백성들”(표준)로 번역된다(fellow-citizens. Buttenwieser).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은 통찰력을 줄 것이다.

본 절의 “지혜”(חִכְמוֹת)에 대해 BHS는(∥ 4<sup>a</sup> ο εβρ' αχαμωθ = 'צח?), “오리겐의 헥사플라 히브리어 본문 2번째 칼럼인 음역부분은 아카모스로 읽기 때문에, ”하카모트“(chakamot)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고 있다. 또한 “묵상”(개역)에 대해 BHS는 (∥<sup>b</sup> ο εβρ' ουαγιθ.)는 “오리겐의 헥사플라 히브리어 본문 2번째 칼럼인 음역부분은 우아기스(ouagith)로 읽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내 마음의 묵상”(개역)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로 번역하였다.

이 절에는 “지혜”(chokma)와 “명철, 통찰력”(tebuna)이 평행을 이룬다. 이 두 용어는 구약성서에서 여러 번 평행을 이루고 나타나며(출 31:3; 왕상 5:9; 7:14; 욥 12:12), 잠언에서는 평행절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잠 2:2, 6; 3:13, 19; 5:1; 8:1; 10:23; 21:30; 24:3). 여기에서 두 단어가 모두 복수형으로 나오는 것은 “강의형”으로서, “심오한 지혜”와 “깊은 통찰력”이란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시인은 오랫동안 고민하며, 싸워온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통찰을 주고자 한다.

4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치면서 내 오묘한 말을 풀 것이다.

시인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한다. 그의 어조는 매우 엄숙하다. “귀를 기울이다”(nata + ‘ozen)은 지혜문학에 주로 등장하는 숙어로서, 제자(자녀)가 스승(부모)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잠4:20; 5:1, 13; 22:17; 시45:11; 시78:1 등).

히브리어에서 “비유”(mashal)는 “조롱거리”(44:14), “풍유”(겔 17:2, 20:49), “시”(민 21:27; 시 78:2), “교훈”(잠 10:1), “계시”(민 23:7) 등의 뜻으로 사용된다. 앤더슨은 “가르침”으로, 크레이기는 “잠언”으로 번역한다. 하반절의 “오묘한 말”(chida) 역시 “비유”, “풍유”(겔 17:2), “수수께끼”(삿 14:12), “난제”(왕상 10:1)와 같은 뜻을 갖고 있다. 이 두 단어는 여러 번 평행을 이루며 나타나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뜻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시 78:2; 잠 1:6; 겔 17:2; 합 2:6).

여기에서 “나의 수수께끼를 푼다”는 말은 어렵다. 왜 이 수수께끼가 “시인의 것”인가? “나의 수수께끼”라는 말은 시인이 만든 수수께끼라는 말인가? 혹은 “시인이 풀어야 할 수수께끼”인가? 여기에서는 시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수수께끼를 “만민들에게”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풀도록 유도하는 것이 분명하다. 시편 78:2에서도 “내가 입을 열어 비유(mashal)로 말하며, 숨겨진 옛 수수께끼(chidot)를 밝혀주겠다”고 말한다. 즉, 시인에게는 더 이상 수



수계끼가 아니며, 그는 문제를 풀었으며, 이제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풀어주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시편과 78편은 현재의 형태에 있어서 둘 다 큰 수수께끼로 주어지고 있다. 독자들은 이것을 풀어야 한다.

시인은 “수금으로” 자신의 오묘한 말을 풀고 있다. 여기에는 음악과 지혜의 말씀 사이의 연관성이 나타난다. 옛날 시인들은 스스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고대 사회에서는 “시”와 “음악”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자”였으며(삼상 16:18), 그의 전설적인 연주솜씨는 아모스 시대에까지도 기억되고 있었다(암 6:5). 수금을 비롯한 음악은 황홀경으로 들어갈 때 가끔 사용되기도 하였다(삼상 10:5). 엘리사도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할 때, 수금을 뜯으면서 말씀을 전하였다(왕하 3:15). “시”는 “영감이 시인을 사로잡을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악과 시가 늘 함께 간다. 그렇지만, 구약성경에서 교훈을 하기 위하여 악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언급한 곳은 여기 외에는 없다.

#### 4.2.2.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5-12절)

##### (1) 자신의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가?(5-8절)

5 나의 간교한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는  
그 어려운 날을 내가 왜 두려워하랴?

마소라 사본에서 이 절은 “어려운 날이 올 때, 내가 왜 두려워 하겠느냐?”로 시작한다. “어려운 날”(yom + ra)은 “어려움”(악)이 “지배하는 날”이다. 이런 날을 “왜 내가 두려워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즉,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시인이 두려움을 느끼는 “어려운 때”(상반절)는 하반절에서 구체화 된다. 그러나 하반절은 번역하기 매우 어렵다(עָוֹן אֶמְצָא וְאֶעֱבֹר).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1)“죄악”과 (2)“속이다”와 (3)“에워싸다”는 뜻을 가진 세 개의 단어가 나타난다. 특히 “죄”(awon)와 “속이다”(aqab)는 두 단어로 연결된 구절('awon 'aqabay)은 해석하기에 매우 어렵다. 70인역과 AV는 “내 발목의 죄”(the iniquity of my heels)로 읽어, “내 발목의 죄가 나를 둘러싸는 (날)”로 번역한다(//KJV, ‘When the iniquity at my heels surrounds me’). 이 번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만약 이 독법이 옳다면 시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셈이 되는데, 이것은 문맥을 거슬리게 되기 때문이다. 『개역』은 “죄악이 나를 에우는 (환란의 날)”으로, 『개역개정』은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에워싸는 (날)”으로 번역된다. 『개역』과 『개역개정』은 『간이 선한문 성경개역』(1940)의 번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죄악이 나를 따라 다닌다”는 번역 역시 “시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번역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문리역』에서는 “박해아자지악환아시”(迫害我者之惡環我時), 즉 “나를 박해하는 자의 악이 나를 둘러 쌀 때”로 번역하여, 히브리어 세 단어를 모두 번역에서 살릴 뿐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매우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BHS 편집자(6<sup>a</sup> οεβρ' ακοββαι=אָקֹבַי; prp אָקֹבַי)에 따르면, 오리겐은 (akobbay)로 읽어, “나의 간교한 원수들”(my deceitful enemies)로 번역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렘 17:6 참조). 브로킹톤은 모음에 변화를 주어서(oqbay), “나의 배신자들”로 읽으며, 다후드는 “나를 중상모략하는 자들”로 번역한다. 원래의 동사(aqab)는 기본적으로 “배신하다”(창 27:36; 렘 9:3; 호 12:4)와 “방해하다”(욥 37:4)는 뜻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나를 배신하는 자들의 악독이 나를 에워싸는 날”, 즉 “나의 배신자들이 악독하게 나를 에워싸는 날”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에워싸다”라는 동사는 3인칭 단수와 1인칭 접미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BHS는 오리겐이 3인칭 복수동사와 1인칭 접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b' o εβρ' ισοββουσι = אָקֹבַי).

시인이 겪고 있는 문제는 이론적인 지식으로 풀 수 없는 실제 생활의 문제였다. 그는 지금 신정론(theodicy)이나 인과응보론(retribution)과 같은 사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그는 현실에서 부대끼고 있으며, 현실적인 답변을 얻고자 한다. 그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 자신의 두려움”에 대한 것이었다. 그의 대적들은 그의 옛 친구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를 배신하였으며, 그에 대해 온갖 중상모략을 하며 비방하고 다닌다. 게다가 그의 원수들은 부유하고 강할 뿐 아니라, 악하다. 그들은 권세를 갖고 있으며, 폭력을 쉽게 행사하는 자들이다. 누구인들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시인은 “왜 그런 사람을 두려워해야 하는가?”하고 스스로 묻는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의문이라기보다, 어려운 때를 통과한 후,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6 그들은 한갓 자기의 재물이나 의지하며 돈 많다고 자랑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개역』과 『개역개정』과 6절을 7절과 연결시키지만, 5절과 연결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분사구문(~의지하는 자)을 통하여, 이제 시인을 대적하는 자들의 내면적 모습이 구체화 된다. 시인의 대적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며”(상반절), “그들의 돈 많음을 자랑한다”(하반절). “재물”(chayil)과 “돈”(부유함, 'oser)은 여기와 욥기 15:29에서 평행을 이루며 나타난다. 시인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세속주의자들이다(52:7; 렘 17:6).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시 34:2; 44:8), 오히려 불신앙의 극치가 되는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한다”. 물론, 시인은 재물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지

만, 그 중요성에 대해 오해해서는 안됨을 지적한다. 악인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가진 궁핍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는 자유롭다는 뜻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7 그렇다. 아무도 자기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으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할 수 있는 자가 없다.

마소라 사본은 상반절에서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할 수 없다”로 읽고 있다. 마소라 사본의 “형제”(ah)는 70인역과 일치하지만, “참으로”(ak)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BHS는 “몇몇 사본들이 ‘참으로’ 읽고 있으므로, 그렇게 읽으라”고 제안한다(¶ 8<sup>a</sup> 1 c pc Mss 78). 즉, “그렇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구속하다”는 동사는 마소라 사본에서 “그가 (남을) 구속하다”(칼 미완료 삼인칭 단수)로 읽지만, BHS는 “아마도 그가 자신을 구속할 수 없다”(니팔형)로 읽으라고 제안한다(<sup>b</sup> 1 frt 777). 이어서 하반절에서 “하나님께 그의 속전을 바칠 수 없다”에서는 “몇몇 사본들이 접속사와 함께 읽고 있다”고 말한다(¶ <sup>c</sup> mlt Mss 777).

“속량하다”(pada)는 “돈을 지불함으로써 죽음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다. 구약시대에 어떤 범죄는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사형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출 21:29-30; 민 35:31; 잠 6:35, 13:8). 그러나 속전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들이 있다(삼상 15:23; 왕상 13:21-22 등). 무엇보다도,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숨을 요구하시면, 그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다(눅 12:20). “아무도 자신을 구속할 수 없다”는 말의 배경에는 죽음이 깔려 있다. 죽음에 직면하면, 돈과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즉 인간의 자원과 자랑에는 한계가 있다.

8 생명을 속량하는 일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이 절에서 BHS는 4개의 본문비평 주를 달고 있다. (1) BHS는 이 절 전체를 “아마 (서기관)의 첨가”로 본다(¶ 9<sup>a-a</sup> prb gl). 즉, 7절은 8절이 없이 바로 9절과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2) “어렵다”는 마소라 사본의 동사에 대해서는 “70인역은 ‘값’이라는 명사로 읽으며, 오리겐을 참조하고, 페쉬타는 형용사로 읽고 있다”고 말한다(¶ <sup>b</sup> 6 και την τιμήν=777 cf o εβρ’; S j&jerer Ohw=777; (i)). (3) “그들의 목숨”(MT)에 대해서는 “70인역을 참조하여 ‘그의 목숨’으로 읽으라”고 제안한다 (¶ <sup>c</sup> 1 777 cf 6). (4) 하반절을 시작하는 마소라 사본의 “부족하다, 모자란다”는 완료형 동사에 대하여 “오리겐이 접두어형으로 읽으라”로 읽고 있

다고 말한다 (||<sup>d</sup> o εβρ' ιεδαλ = לַחַיִּים]).

우리는 7절과 8절이 4행(quatrain)을 이루고 있으며, “구속”(pidyon)의 주제로 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리하여 8절은 7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을 속량하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부자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으며, “아무리 벌어도 목숨 값은 마련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전을 바친다는 생각 자체가 쓸모 없는 일이다. 인간의 모든 욕망은 영원히 사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어떤 노력도 헛될 수밖에 없다.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도 그를 다시 살려낼 수가 없다. 자기 생명을 돈으로 연장해 보려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이런 자는 어리석을 뿐 아니라, 무능한 존재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1절),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시 37:1).

(2) 부자의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는가?(9-11절)

9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말아라.

시인은 짙막한 격언 형식으로 그의 청중들을 권면한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말아야 한다”. 만약,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죽음까지 피할 수 있다면, 그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원문의 단어(shachat)는(1) “썩다, 파멸하다”는 뜻과 (2) “구덩이, 무덤, 울가미”의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구덩이는 “스울”의 유사어이다(16:10; 30:9; 55:23; 사 38:17; 51:14). 『개역』의 “썩음을 보다”는 70인역과 벌게이트를 따른 독법이다 (sh-h-t, “to go to ruin”으로 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BHS는 하반절에서 “많은 사본들이 접속사를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 10<sup>a</sup> mlt Mss אֲלֵי]).

10 누구나 다 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다.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이 절은 죽음의 보편성을 말해 준다. 원문은 “그가 볼 것이다”로 시작하지만, 여기의 “그”는 시인의 대적이 아니라, 일반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 지식은 바로 “모두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왜 “지혜자가 죽는다”는 말을 문장 초두에 두는가?

14절에서는 “하나님은 내 목숨을 건져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시인

의 논리는 분명하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의 근본 진리를 깨닫는 시인도 죽는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일 것이다. 이리하여 10-12절은 죽음이 인간을 초토화 시켜가는 과정을 점점 더 강렬하게 묘사해 간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든다. 죽음으로 모든 구별이 없어진다.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는 지혜문학에서 평행을 이루며 한 쌍을 이룬다(잠 3:35; 11:1; 13:20 등). 성서의 지혜 문헌에서 “어리석은 자”는 지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님의 뜻과 계시를 거부하는 자이다. 지혜의 근본은 주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데(잠 1:7), 어리석은 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꾸지람을 거부하는 자이며(잠 12:1), 자신은 비판을 넘어 있다고 생각한다.

3행에는 “재물”(chayil)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한다. 앞에서 악인들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였다”(7절). 그러나 그는 죽을 때 자신의 재물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며, “다른 사람”에게 남기고 간다. BHS는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주고 간다”를 다음 절로 연결시키라고 제안한다(∥ 11<sup>a</sup> prb cj c 12). 이런 제안은 아마 이 절이 너무나 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70인역 역시 3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그들이 땅을 차지하여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두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대대로 머물 곳은 무덤뿐이다.

마소라 사본의 상반절에 처음 나오는 “그들의 속 생각”(qirbam, 개역)에 대해, BHS는 여러 역본들(70인역, 시리아역, 탈굼)을 따라서 “그들의 무덤”(qibram), 혹은 “무덤”(qebarim 복수형)으로 읽고 있다 (∥ 12a 1 קברם (cf 55 ט) vel קברים). 우리가 볼 때에도 “속 생각”보다는 무덤“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그들의 무덤이 그들의 영원한 집이다”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영상은 강력하다. 여기에 빈정담(irony)이 있다. 부자들은 자신의 아름다운 집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무덤이 “그들의 영원한 집”이 될 것이다(전 12:5). 부자는 “영생“을 살 수 없을 뿐 아니라(10절), 오히려 무덤 속에 영원히 묻힐 것이다. “무덤“은 그들의 영원한 집일 뿐 아니라, 그들이 “대대로 거처할 곳“이다. 우리는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대대로 머물 곳은 무덤뿐이다”로 번역하였다.

마소라 사본의 11절 하반절은 해석하기 어렵다. “그들의 이름으로”(beshemotam)와 “땅”(‘admot)에 대해 BHS는 각각 “역본들을 참조하여 ‘그들의 땅’으로 읽으라”(∥<sup>b</sup>1 שמותם cf Vrs)고 말하며, “한 사본과 70인역과 데오도션은 ‘그들의 땅’으로 읽는다”고 말한다(∥ c Ms 5 θ’ אדמותם). 그러나 히브리 시의 평행법에 있어서, 인칭대명사는 번역 과정에서 자주 생략되기도 하며, 침

가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는 “그들이 땅을 그들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어구의 해석에 있다. 대부분의 번역들은 “부자들이 땅을 그들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리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개역개정), “그들의 땅에다가 제 이름을 매겼다”(공동역),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다”(표준역) 등으로 번역된다(//NIV, NRS). 이렇게 본다면, “자기 이름으로 칭하다”(qara' be + shem) 땅이나 재산을 양도할 때 법정에서 소유권을 취하는 행동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부자들의 소유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원한 기업은 결국은 한 평의 무덤에 불과할 것이다. 인간 부귀와 자랑도 죽음 앞에서는 헛되다. 따라서 힘센 자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부유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형식(qara' + beshem)은 땅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맥락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Raabe 1991:221). 법적으로 땅을 소유할 때 사용되는 형식은 구문구조가 조금 다르다(qara'+목적어+ beshem; 민32:42; 신 3:14; 사 18:29; 호 1:4 참조; 또 다른 형식으로서는 niqra' shem 'al이 있다, 삼하 12:28; 왕상 8:43; 사 4:1; 암 9:12).

라아베는 여기에 “의도적인 모호성”(deliberate ambiguity)이 있다고 본다. 먼저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qara' beshem + 목적어)는 형식을 들을 때, 이것은 제의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는다(창 4:26; 출 33:19; 왕하 5:11; 시 80:19; 사 41:26; 65:1; 렘 10:25; 율 3:5; 습 3:9; 숙 13:9). 따라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충격적이며, “그들은 자신을 신격화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6절). 그러나 바로 이어서 “그들의 땅에 대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므로, “비록 그들이 많은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무덤이 그들의 땅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으로 라아베는 이해한다.<sup>13)</sup>

13) 스미스(Smith 1993:107)는 여기의 문맥이 “죽음”과 연관되며, 우가릿 문헌(KTU 1.161)과 아카드어에서 이 용어(suma zakaru)가 “죽은 자”를 부르는 데 사용되었으므로(삼하18:18의 hazkir semi, KAI:16, 21의 yzkr sm; 시 16:3-4), 여기에서도 “죽은 조상”을 부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부자는 장사되며 조상숭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의 영원한 집에서. 부자들은 자신의 죽은 조상을 부르는 관습에 빠져 자신을 잘못 위로한다.” 또 다른 독법으로서 NJPS에서는 아래와 같이 번역한다.

Their grave is their eternal home,  
the dwelling-place for all generations  
of those once famous on earth.

스톨키(Stolki 1978:361-2)는 “밤을 지새우다”는 동사(lin)를 “불평하다, 애통하다”라는 동사(lwn, ‘to complain, murmur’; 출 17:3)에서 나온 것으로 보며, 바로 앞서 나오는 “존귀함”(biqar)을 “가축”(baqar)으로 읽도록 제안한다. 즉 “사람은 가축(처럼) 불평하지

(3) 첫 후렴: 수수께끼의 실마리 제시(12절)

12 사람이 제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하루 밤을 세울 수 없으니,  
죽음을 앞두고도 모르는 미련한 짐승과 같다.

마소라 사본에서는 “사람”(‘adam)과 “존귀함”(yaqar)이 밀접하게 이어져 있으며, “존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뜻한다. 여기에서 “사람”(‘adam)은 “인간 일반”을 가리킬 수 있으나, 뒤 따라 나오는 “존귀한 가운데”(biqar)라는 형용사 구를 볼 때, 부자나 권세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존귀한 사람”을 받아주는 동사구인 “장구하지 못한다(bal yalin, 개역)”는 직역하자면, “하룻밤을 세우지 못한다”는 뜻이다(stay overnight, 창19:2 등, HALOT). 여기에도 역설이 있다. 부자들은 이 세상에서 견고한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려고 한다. 그러나 하룻밤을 자고 가는 나그네처럼 짧은 인생을 살다가 떠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죽을 것 같지만, 부자라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

이 구절에 대해 BHS는 “70인역과 페쉬타는 ‘깨닫지 못한다’로 읽으며, 20절을 참조하라”고 말한다( || 13<sup>a</sup> 6 (5) συνήκειν cf 21). 이 독법은 20절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안된 것 같다. 그러나 두 절이 각 연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므로, 우리는 꼭 본문을 조화시키기 위해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sup>14)</sup>

시인은 “짧은 인생을 사는 것도 모르고, 자신의 부와 명예에 대해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오만한 자”를 “멸망할 짐승”에 비유하고 있다. 시편에서는 “어

못한다”(Man is (as) cattle and does not complain). 그는 시인이 “명백한 불의를 보고서도 항의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lack of articulateness)”을 말하고 있다고 보며, 이리하여 1-2절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데 너무 티미하다”(too inarticulate, or too timid)로 해석한다. 스톨키의 해석은 가능하지만, 20절에 근거하여 (1) “존귀함”을 “짐승”으로, (2) “하룻밤을 지새우다”를 “깨닫다”로 바꾸어 읽어야 한다. 그러나 12절과 20절의 차이점은 수수께끼를 푸는 데 의도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전통적인 해석도 무난하다고 볼 수 있다.

14) 스톨키(Stolki 1978:361-2)는 “밤을 지새우다”는 동사(lin)를 “불평하다, 애통하다”라는 동사(lwn, ‘to complain, murmur’; 출 17:3)에서 나온 것으로 보며, 바로 앞서 나오는 “존귀함”(biqar)을 “가축”(baqar)로 읽도록 제안한다. 즉 “사람은 가축(처럼) 불평하지 못한다”(Man is (as) cattle and does not complain). 그는 시인이 “명백한 불의를 보고서도 항의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lack of articulateness)”을 말하고 있다고 보며, 이리하여 1-2절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데 너무 티미하다(too inarticulate, or too timid)”로 해석한다. 스톨키의 해석은 가능하지만, 20절에 근거하여(1)“존귀함”을 “짐승”으로, (2) “하룻밤을 지새우다”를 “깨닫다”로 바꾸어 읽어야 한다. 그러나 12절과 20절의 차이점은 수수께끼를 푸는 데 의도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전통적인 해석도 무난하다고 볼 수 있다.

리석은 짐승”과 “사람”이 여러 번 비교되며 동일시 된다(시 32:9; 37:20; 73:22 등). 여기에서 “멸망할 짐승”은 곧 도축이 될 짐승을 가리킨다(dama III, “to be destroyed”, 니팔형). BHS는 “몇몇 사본들은 ndmh로 읽으며, 70인역과 페쉬타와 제롬은 ‘그들처럼’(dama I, ‘to be like, resemble’)으로 읽는다고 말한다(¶<sup>b</sup> pc Mss  $\eta\eta\eta\eta$ ,  $\Theta$ (S Hier) *καὶ ὁμοιώθη αὐτοῖς*). 즉 여러 역본들은 ”어리석은 부자 “와 ”짐승“을 비교하지, 꼭 ”도축될 짐승“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히브리어 동사형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되며(dama I, 혹은 III), 우리는 문맥을 따라 ”죽음“의 요소를 드러내는 번역을 따랐다.

이 첫 가르침에서 시인은 별로 적극적인 교훈을 주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는 그릇된 환상을 깨뜨리고 있다. 부자나 강한 자나 모두 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운명이 있을 것이다(15절).

#### 4.2.3. 누가 미련한 짐승인가?(13-20절)

##### (1) 가난한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13-15절)

이 소절에서는 “깨달음이 없는 어리석은 부자”와 “깨달음을 가진 가난한 의인”의 운명이 대조되고 있다.

13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은 이것이다.

시인은 앞 연에서 말한 것을 요약하며, 되돌아본다. 그는 “존귀한 사람들”이 철저히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들이 급작스럽고 처참한 종말을 맞이한 것은 바로 그들의 자만심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권세와 부를 과신하고 있었다.

이 문장은 “이것이 그들의 길이다”로 시작한다. 여기서 “길”은 “운명”을 가리킨다. “길”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kesel*)는 “어리석음”(개역, 표준, NRS, Craigie), 혹은 “확신”(공동, NIV)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뜻으로 사용된다. 전자로 본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운명이다”로 번역되며, 후자로 본다면, “이것은 자신을 믿는 자들의 운명이다”로 번역된다. 우리가 볼 때, 두 번째 뜻이 문맥에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즉 이들은 “어리석은 확신”에 빠져 있다. 부자는 죽을 때 재물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 옳은 자신이 은금을 신뢰하였음을 부인한다(욥 31:24). BHS는 “70인역과 페쉬타가 ‘그들의 길이 그들의 죄의 근원이 되었다’”로 읽고 있음을 제시해 준다(¶ 14<sup>a</sup>  $\Theta$ (S) *σκάνδαλον*).

하반절의 번역도 까다로우며 몇 가지 본문비평의 문제를 갖고 있다.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라는 『개역』의 번역은 오역에 가깝다. “후세 사람”은 원문에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로 읽어야 한다. 즉, 그들은 “자만심을 가진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다. BHS는 탈군과 욥기 8:13에 근거하여 “뒤따르다” 대신에 “그들의 길”(‘orchotam)로 읽도록 제안하고 있다(∥<sup>b</sup> ט wbsw phwn = וְאַחֲרֵיהֶם? וְאַחֲרֵיהֶם? frt 1 cf Hi 8,13 ).

하반절은 마소라 사본을 따라 직역한다면, “그들의 입을 즐거워 하는 그들의 추종자들(의 운명도 마찬가지로이다)”이 된다. 여기에서 “그들의 입”은 “그들의 말”을 가리키며, “즐거워 하는 모습”은 “인정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자만감으로 가득찬 강자와 부자 뿐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며 신봉하고 추종하는 자들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는 뜻을 전해준다.

여기에서 BHS는 “그들의 입”에 대해 두 개의 사본과 제롬은 ‘그들의 입과 같이’로 읽고 있으며, ‘그들의 힘’으로 읽으라”고 제안한다(∥<sup>c</sup> 2 Mss Hier ’כַּפּ ; prp כַּכֵּף). 또한 “즐거워 하다”에 대해서는 “아퀼라와 제롬은 ‘달려가다’로 읽고 있으며, 오리겐도 이와 유사하게 음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다(∥<sup>d</sup> α’ (Hier) δραμοῦνται = יָצָו cf ο βρ’ ιαροσου(?)).

14 그들은 양처럼 스올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밝아 오면 그들은 바로 무덤에 떨어질 것이다.

그들의 모습은 시들과,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 절에 대해 BHS는 10개의 본문비평을 시도하고 있다.

(1) 첫 단어 “양처럼”은 “훼손되었다”(15<sup>a</sup> crrp). 즉, “제거하는 것이 좋다”는 뜻을 암시한다.

(2) “스올로 정해졌다”(לְשֵׂאוֹל שָׁחוּ)에 대해서는 “아마 ‘스올로 헤엄친다’(겔 47:5 참조) 혹은 ‘스올로 돌아간다’로 읽으라. 그리고 이 구를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뒤에 두라”고 말한다(∥<sup>b-b</sup> 1 frt שָׁחוּ לְ vel שָׁחוּ לְ et tr post ירעם).

(3)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위의 (2)를 보라(∥<sup>c</sup> cf<sup>b-b</sup>).

(4)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יִירְדוּ)에 대해서는 “그가 다스릴 것이다. 혹은 단축형 접미어 형을 제안한다(∥<sup>d</sup> prp יִירְדָה vel יִירְדוּ).

(5) “정직한 사람들이 그들을”에 대해서는 “정직한 자들 가운데’ 혹은 ‘그들의 살/몸으로 제안한다”(∥<sup>e-e</sup> prp בְּמִישָׁרִים vel בְּשָׂרָם).

(6) “아침에”에 대해서는 “무덤 혹은 ‘씩음, 부패’로 제안한다”(∥<sup>f</sup> prp לְקַבֵּר vel לְקַבֵּי).

(7) 마소라 사본의 독법(tsiram), “그들의 사신(messenger), 영상(image)”은 너

무나 난해하며, 문맥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본들과 콤란과 케티브는 ‘그들의 반석’(witsiram)으로 읽으며, 70인역은 ‘그들의 도움’으로, 페쉬타는 ‘그들의 반석’으로 읽고 있다. ‘그들의 모양’으로 읽으라”로 제안한다(∥<sup>s</sup> mlt Mss ut Q, K, וַיִּי, **Θ** καὶ ἡ βοήθεια αὐτῶν, **S** wllw<sup>r</sup>wrthwn = וַיִּוֹרָם; prp וַיִּוֹרָם vel וַיִּוֹרָם]).

(8) “시들다”(leballot, 피엘 부정사 연계형)는 “몇몇 사본은 ‘끝나다, 사라지다’로 읽고 있으며, ‘시들다’를 뜻하는 다른 동사의 칼 부정사 연계형으로 읽으라”고 제안한다(∥<sup>h</sup> pc Mss לבלוּת ; prp לבלוּת).

(9) 마지막 두 단어를 이루는 “그들의 거처가(될 것이다)”에 대해서, “70인역과 페쉬타는 ‘그들의 영광으로부터’로 읽고 있으며, 70인역의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루시안 사본은 ‘내쳐질 것이다’(thrust out)를 첨가하고 있다. ‘그들에게 거처가 될 것이다’로 읽으라”(∥<sup>i</sup> **Θ**(**S**) ἐκ τῆς δόξης αὐτῶν, **Θ**<sup>AL</sup>(**S**) + ἐξώσθησαν; prp לְמוֹתָם לְבָלוּת). 사실 마소라 사본에서 “스올은 그의 거처로부터 멀 것이다”는 뜻이 통하지 않으므로, “스올은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로 읽어야 한다(즉 전치사 min은 생략하고, lo는 lamo로 읽는다).

(10) “거처”(mizzebul)는 “많은 사본들에는 이중점 없이 자인 만 나타나고 있다”(∥<sup>k</sup> mlt Mss ׀ sine dagesh ).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들”과 죽음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비유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충격적이다. 앞에서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짐승”으로 소개되었는데, 이제 “죽음”이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스올”로 끌고 가고 있다. 그들은 어리석은 양과 같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인생의 달콤한 목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에, 죽음이 이미 그들을 “뜯어먹고 있다”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시 23:1 참조).

이 절의 중앙 소절에 있는 구절(וַיִּוֹרָם בָּם שְׂרִימוֹ לְבָלוּת)은 전통적으로 “정직한 사람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로 번역되지만, 문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NRSV는 “그들은 바로 무덤으로 내려갈 것이다”로 번역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번역을 따랐다. “그들의 아름다움”(개역)으로 번역된 단어(tsir)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하기 어렵다. 마소라에서는 의미가 불분명한 단어(tsir)로 읽지 않고(ketiv), “모양”(tsur III //yatsar)으로 “읽으라”(qere)고 한다. 여기서 모양은 다듬은 “모양”이므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음부에서 “소멸될 것이다”(bala). 이것은 마치 제물이 제단에서 모두 타버리듯이 소멸되는 모습을 보여준다(욥 18:13 참조).

15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 주시며,

스울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셀라)

시인은 이 소절의 마지막 절에서 자신의 믿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 동안 악인의 운명을 말했는데, 이제는 의인인 자신의 운명을 말한다. 그는 두 개의 중요한 동사를 통하여, 그의 운명을 악인과 대조시킨다.

(1)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실 것이다”(pada). 시인은 7절에서 “아무도 자기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다”(lo-pada), 8절에서 “생명을 속량하는 일(pidyon)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종의 생명을 속량하실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현재의 고통이나 때이른 죽음에서 건지는 것을 가리킬 수 있다(삼하 4:9; 왕상 1:29; 시 55:19; 렘 31:11). BHS는 “내 목숨”을 하반절에 있는 “스울의 세력 뒤로 옮겨 놓으라”고 제안한다(∥ 16<sup>a</sup> huc tr).

(2)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laqah).” 이 단어는 에녹에게 적용된 단어이다(창 5:24).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로 갔다(창 5:24; 왕하 2:9 이하). 시인은 죽음의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시인은 아마 자신이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음부(즉, 죽음)를 통과하지 않고 주님께 바로 나아갈 것을 바라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눈 앞에 당면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H. Hupfeld, Staerk, R. Kittel, Stamm, Weiser).

여기에서도 시인은 “음부”와 “목자” 영상을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그는 “스울의 손에서”(from the hand of)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물론 “손”은 “권세”를 뜻하지만, “손”을 사용한 것은 바로 앞에 나온 “목자의 손”을 연상시켜 주며, 죽음을 의인화 시킨 것이다(De Meyer 1979:164).

## (2) 부자의 영원한 운명은 어떤 것인가?(16-19절)

16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재산이 늘어나더라도”에 대해 BHS는 단순한 표기를 하고 있으나(∥ 17<sup>a</sup> cf 2,2<sup>b</sup>), “시편 2:2을 참조하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오타일 수도 있다.

이제 시인은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한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체험적 지식을 가졌으므로, 더욱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더라도,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다. 앞에서 시인은 악인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거부하였지만(5절), 이제는 실제적으로 두려움이 해소되었음을 말한다.

17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마소라 사본의 하반절에서 “못한다”는 접속사 없이 나타난다. BHS는 “많은 사본들과 70인역은 접속사가 함께 나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18<sup>a</sup> nonn Mss 6 87g).

부자들이 평생 쌓아둔 것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비극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이었기 때문이다(욥 1:21; 전 5:15; 딤후전 6:7). 그러나 그는 그의 영광을 음부에까지 가지고 갈 수 없다. 죽음은 모든 것을 평준화시키는 것이다.

18 비록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이 절에서도 BHS는 세 개의 본문비평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 마소라 사본의 “그가 흡족하게 살다”(피엘 접두형, ‘선포적 피엘형’)에 대해 BHS는 “두 개의 사본은 ‘복을 받다’(푸알형)로 읽으며, 70인역은 직설법 미래 중간태로서 ‘복을 받다’로 읽고 있다”고 한다(∥ 19<sup>a</sup> 2 Mss 777g, 6 εὐλογηθήσεται = 777g).

(2) 마소라 사본의 “그들이 너를 칭찬한다”에 대해, BHS는 “한 사본은 ‘그가 너를 칭찬한다’로 읽으며, 70인역과 페쉬타를 참조하라”고 한다(∥<sup>b</sup> 1c Ms 77 cf 65).

(3) 마소라 사본의 “너에게”에 대해 BHS는 “몇몇 사본과 70인역과 페쉬타를 따라 ‘그에게’로 읽으라”로 제안한다(∥<sup>c</sup> 1 c pc Mss 65 iy).

시인은 계속하여 부자들을 약올리고 있다. 그는 좀 더 시간을 끌면서, 부자들이 살아 생전에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계속 묘사해 간다. 그들은 “살아 있는 동안에 자신을 축복하였다”(yebarek). 즉 그는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성공하고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 주었다”.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이웃의 축하를 받으면서, 그는 죽음의 문제와 궁극적인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다(눅 12:19).

19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말며,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이 절에 대해 BHS는 두 개의 본문비평 문제를 다룬다.

(1) 마소라 사본의 첫 단어인 “그녀가 간다”는 인칭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BHS는 “페쉬타를 참조하여 아마 ‘그가 가다’로 읽으라”로 제안한다 (∥

20<sup>a</sup> S wtm תְּחַיְהוּ et perduces eum; prb 1 וְיָבִי).

(2) 하반절에서 “그들이 빛을 보다”를 BHS는 “두 개의 사본과 70인역과 페쉬타와 함께 ‘그가 보다’로 읽으라”고 제안한다.

어리석은 부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으며, 그들은 결국 “그들의 조상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이 표현은 “가족 무덤”을 뜻하거나(창 49:29), 혹은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용법일 수 있다. 그들의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조상들의 무덤에서 끝난다(11절).<sup>15)</sup>

“그들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스올은 어둠이 영원히 다스리는 땅이다(욥 17:13; 시 88:12). 따라서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어둠 가운데 산다. 부자는 죽음을 넘어 희망을 가지지 못한다. 죽음 후에 소망이 없는 인생은 참된 가치를 지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3) 둘째 후렴: 수수께끼의 답(20절)

20 사람이 제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죽음을 앞두고도 모르는 미련한 짐승과 같다.

마지막으로 BHS는 4개의 본문비평 문제를 제기한다.

(1) “사람”에 대해서는 “몇 개의 사본과 70인역 시내사본, 베로나사본, 루시안 사본에는 접속사와 함께 나오고 있다”고 말한다(∥ 21<sup>a</sup> pc Mss Ⓞ<sup>SRL</sup> וְאִי).

(2) “그리고 없다”(welo’)에 대해서는 “두 개의 사본과 역본들에는 접속사가 없으며, 몇몇 사본들은 bal로 읽는다”고 지적한다(∥ <sup>b</sup> 2 Mss Vrs וְ, pc Mss וְ).

(3) “깨닫지 못한다”에 대해서는 “몇몇 사본들과 12절에서 ‘하룻 밤을 지내지 못한다’로 읽고 있다”고 말한다(∥ c pc Mss וְ ut 13).

(4) “망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12절의 같은 단어를 참조하라”고 한다(∥ <sup>d</sup> cf 13<sup>b</sup>).

부자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깨닫지 못하는데” 있다. 그들은 죽음의 차원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리석음에 빠졌다. 이제 지혜자는 자신의 수수께끼를 다 풀고, 그의 청중에게도 말하고 있다. 그들도 깨닫지 못하면,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죽음의 문제를 부귀로 풀 수 없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있다. 사람에게 총명이 없다면, 죽음을 앞두고도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짐승과 같다. 여기에서 총명은 궁극

15) New Jewish Publication Society에서 나온 성경은 19절을 조상에 대한 언급으로 번역한다. “yet he must join the company of the ancestors”.

적인 실재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환상과 속임수로 사는 것이다. 그런 삶은 텅 비어 있고, 목적이 없다.

#### 4.3. 소결론: 시편 49편 새번역<sup>16)</sup>

- 1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 보아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너희 귀를 기울여 보아라.
- 2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도,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도, 모두 귀를 기울여 보아라.
- 3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은 통찰력을 줄 것이다.
- 4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치면서 내 오묘한 말을 풀 것이다.
  
- 5 나의 간교한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는  
그 어려운 날을 내가 왜 두려워하랴?
- 6 그들은 한갓 자기의 재물이나 의지하며  
돈 많다고 자랑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 7 그렇다. 아무도 자기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으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할 수 있는 자가 없다.
- 8 생명을 속량하는 일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 9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말아라.
- 10 누구나 다 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다.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 11 그들이 땅을 차지하여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두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대대로 머물 곳은 무덤뿐이다.
- 12 사람이 제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하루 밤을 세울 수 없으니,  
죽음을 앞두고도 모르는 미련한 짐승과 같다.
  
- 13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은 이것이다.
- 14 그들은 양처럼 스올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밝아 오면 그들은 바로 무덤에 떨어질 것이다.  
그들의 모습은 시들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

16) 구조분석은 “연”(stanza)만 반영하였으며, “소절”(strophe)까지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연”과 “소절” 단위 표시 문제가 있어서 생략하였다. 후렴은 볼드체로 표기해 보았다.

- 15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 주시며,  
스울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셀라)
- 16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 17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 18 비록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 19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말며,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 20 사람이 제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죽음을 앞두고도 모르는 미련한 짐승과 같다.

## 참고문헌 1 (히브리 시 번역 이론)

김정우 1998. “시편 본문비평에 있어서 70인역과 쿹란 사본의 위치와 가치.” 『성경원문연구』 3:291-317.

김정우 1999. “구약성서에 나타난 신화적 짐승, 리위야단, 라합, 용의 영상에 대한 번역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5:7-23.

Crim, Keith R. 1972. “Translating the Poetry of the Bible.” *Bible Trans* 23:102-15.

Dorn, Louis 1994. “Philippine Poetry and Translation: A General Survey.” *Bible Trans* 45:301-15.

Goodman, Paul. 1971. *Speaking and Language: Defence of Poetry*. Random House: New York.

Hatton, Howard 1974. “Translation into Thai Poetry.” *Bible Trans* 25:131-39.

Nida, Eugene A. and Taber, Charles R.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 E. J. Brill.

Nida, E. A. 1975. *Language Structure and Translation. Essays by E. A. Nida*. Selected and Introduced by A. S. Dil. Stanford University Press.

Ogden, Graham S. 1988. “The Use of Figurative Language in Malachi 2:10-16.” *Issues in Bible Translation*. UBSMS 3. Ed. by P. C. Stine. London et al. UBS.

Reyburn, William D. 1988. “Poetic Parallelism: Its Structure, Meaning and Implication for Translators.” *Issues in Bible Translation*. UBSMS 3. Ed. by P. C. Stine. London et al. UBS.

Sterk, Jan P. 1989. “Bible Poetry in Translation.” *OPTAT* 3 (1):39-40.

Waard, Jan de and Nida, Eugene A. 1986.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ng*. Nashville. : Thomas Nelson Publishers.

## 참고문헌 2 (시편 49편)

Bordreuil, P. 1988. “Mizzebul 1 : Propos de Psaume 49:15.” In *Ascribe to the Lord*. Ed. by L. Eslinger and G. Taylor. Pp. 93-98.

De Meyer, F. 1979. “The Science of Literature Method of Prof. M. Weiss in Confrontation with Form Criticism, Exemplified on the Basis of Ps. 49.” *Bijdragen*



40:152-168.

Kuntz, J. K. 1977. "The Retribution Motif in Psalmic Wisdom." *ZAW* 89: 223-233.

Lathey, C. 1952. "A Note on Psalm 49:15-16." *Expository Times* 63:288.

Mulder, M. J. 1975. "Psalm 49:15 en 16: Twee Problematische Verzen." In *Loven en geloven*. by A .Ridderbos-Boersma. Pp. 117-134.

Pautrel, R. 1966. "La Mort est Leur Pasteur [Ps 49(48):14-15]." *RSR* 54 (4):530-536.

Perdue, L. G. 1974. "Riddles of Psalm 49." *JBL* 93:533-542.

Porter, J. R. 1962. "Samson's Riddle: Judges 14:14, 18." *JTS* 13:106-9.

Raabe, P. R. 1991. "Deliberate Ambiguity in the Psalter." *JBL* 110 :213-27.

Ramaroson, L. 1985. "Immortality and Resurrection in the Psalms." *Theology Digest* 32(3): 235-238.

Rose, A. 1961. "Le Sort du Riche et du Paurver (The Lot of the Rich and the Poor)." *BVC37*: 53-61.

Slotki, J. J. 1978. "Psalm 49:13,21 (AV 12,20)." *VT* 28:361-362.

Smith, M. S. 1993. "The Invocation of Deceased Ancestors in Psalm 49:12c." *JBL* 112:105-107.

Stenzel, M. 1954. "Psalm 49:14-16a." *TZ* 10:152-154.

Waltke, B. K. 1993. "Responding to an Unethical Society: Psalm 49." *Stimulus: The New Zealand Journal of Christian Thought and Practice* 1:13-18.

## Abstract

### Theory and Practice of Poetry Translation in the Hebrew Bible -The translation of Psalm 49

Jung-woo Kim

The aim of this article is twofold: (1) to investigate theory and practice of poetry translation in the Hebrew Bibl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orean Bible translations, and (2) to apply our new understanding of Hebrew poetry to the translation of Psalm 49, thereby suggesting a new translation. The first part examines the popular myth of existence of meter in Hebrew poetry, parallelism, image, 'poetic meaning,' and several issues relating to the translation of Hebrew poetry such as 'formal correspondence and dynamic equivalence,' textual criticism, the possibility of 'form-critical correspondence' of the poems between the source language and the receptor language, and structural analysis of the poem. In the second part of the article, a new translation of Psalm 49 is offered, based on a thorough exegesis and textual criticism in the BHS textual apparatus.